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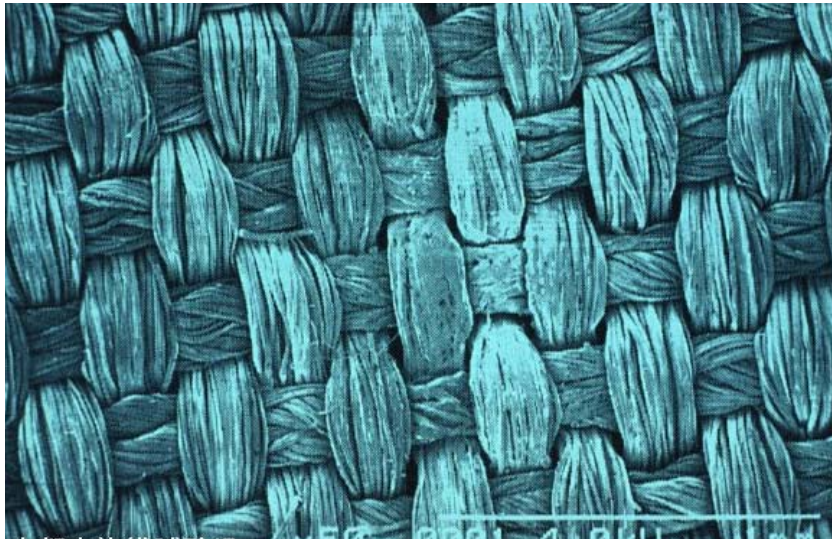
## 127. 섬유제품 불량 상담 Q&A

### - (34) 소핑제 및 소포제 잔류에 의한 반점 -

Q. 염색후 건조시 원단에 가늘고 진한 반점상의 얼룩과 같은 것이 붙어있다. 원인과 대책은?

해설)

- 이러한 반점상의 물질은 비누 찌꺼기와 소포제가 섞여 있는 것이라고 사료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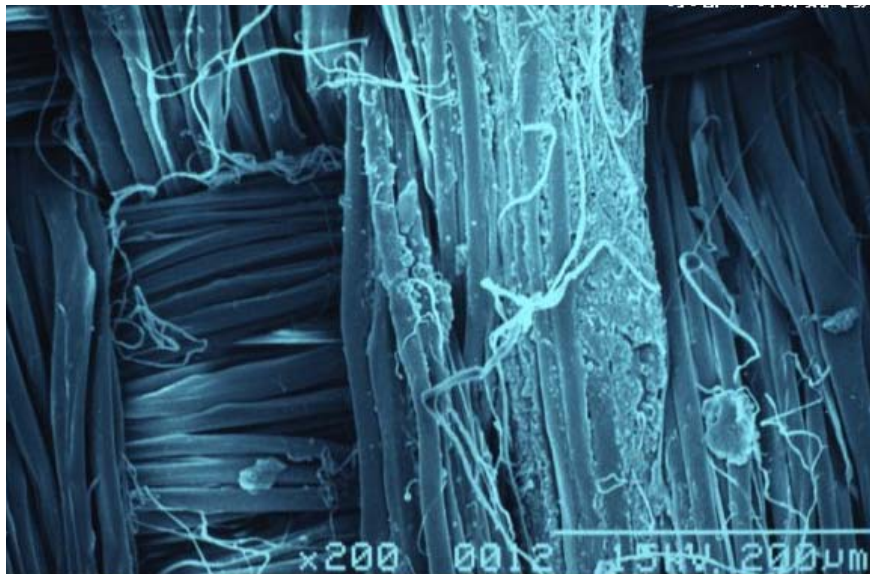


<비누 찌꺼기에 의한 반점 얼룩>

- 소포 건직물 침염업계에서는 한 번에 염색하는 로트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경비라든가 시간 절약의 의미에서 연속염 염색이 행해지고 있음.
- 연속염을 할 때에는 연한 색상부터 염색을 하고, 염색을 마치면, 염액을 모두 비우지 않고, 남긴 후, 추가염료 및 조제를 첨가한 후 염색을 하는 경우가 있음. 이 경우, 소포제와 같은 조제의 반복투입으로 염욕에는 과량의 소포제가 잔류할 가능성이 있음.
- 한편, 소핑제의 경우 금속과 반응하여 찌꺼기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, 이러한 찌

거기가 염욕중에 잔류하다가 반점형태의 얼룩을 만드는 경우가 있음.

- 결점부분의 성분을 분석하여 보면, 다량의 규소나 칼슘이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이러한 규소성분은 소포제의 주성분이 실리콘이어서 검출되는 것이며, 칼슘은 견섬유의 세리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서 견 정련시 빠져나온 세리신 성분과 소포제의 규소가 결합된 찌꺼기라고 볼 수 있음.



<실에 부착된 비누 찌꺼기>

- 따라서 염색시 과도한 소포제나 소핑제는 충분한 수세를 하지 않으면 염색물에 잔류될 가능성이 크고, 다음 공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많으므로 충분한 수세조건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음.